

대법원 2018도12121 강요미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노정희)은 2018. 10. 25. 조원동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에서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피고인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CJ그룹 회장 손경식, 부회장 이미경에게 이미경이 CJ그룹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, 피고인에 대하여 **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12121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▣ 사안의 내용

-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 대통령(박근혜)과 공모하여 2013. 7.경 CJ그룹 회장 손경식에게 “VIP의 뜻입니다. 이미경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”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손경식과 이미경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로 공소가 제기됨

▣ 소송 경과

- 제1심 :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
- 원심 :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
 - 피고인과 손경식 사이의 2013. 7. 하순경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은 손경식이 녹음한 것이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

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, 위 녹음한 통화내용을 재녹음한 파일 또는 그 파일의 복사본으로 보이는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음

-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을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강요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와 피고인의 강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

- 피고인의 상고 제기

2. 대법원의 판단

▣ 사건의 쟁점

- 피고인과 손경식 사이의 2013. 7. 하순경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- 피고인에 대하여 강요범행에 관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와 강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▣ 판결의 결과

-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(☞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)

▣ 판단의 근거

-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

3. 판결의 의의

- ▣ 위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, 강요죄의 공모와 고의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